

지역 소식 통

부안군가족센터, 상담·사례
관리 서비스 본격 운영

부안군가족센터는 2025년을 맞아 본 센터에서 제공하는 상담 서비스와 사례관리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개인과 가족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의 문제 해결을 지원하며 지역사회 내 건강한 가정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센터는 상담뿐만 아니라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통해 내담자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룬다.

사례관리 서비스는 내담자의 상황을 면밀히 평가하고 필요한 자원과 지원을 연계해 지속적인 관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내담자들은 단기적인 상담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상담 서비스는 개인상담, 부부상담, 생활정보 제공을 포함해 위기 가정 지원, 스트레스 관리 및 부모 교육 등 다양하게 운영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31일까지 24개
농촌지원 사업 신청 접수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오는 31일까지 농촌지원 시범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선진 영농기술을 보급하고 경쟁력 있는 전문 농업인을 육성해 지역 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기술 보급과 인력 양성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총 24개 사업, 약 15억 2000만 원 규모로 △청년농업인 육성(6개 사업) △교육 및 농업인 단체 지원(8개 사업) △농산물 가공 지원(6개 사업) △농촌체험 및 안전 사업(4개 사업)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각 사업 기준에 부합하는 농업인과 단체이며, 신청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후에는 담당 부서의 현지 실태조사와 농업 산학협동 심의회를 통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2025년 대전환 나선다

민생경제 회복·문화·관광도시 조성 등 6개 시정목표 제시

이학수 정읍시장은 14일 열린 제30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에서 올해 시정계획을 발표하며 민생경제 회복, 문화·관광 도시 조성, 미래 산업 육성, 도시 인프라 개선, 보건·복지 확충 등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시는 올해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소상공인 지원에 30억원을 투입하고 정읍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800억원으로 확대해 지역 소비를 촉진할 예정이다. 또한, 정읍형 공공배달망 '위메포' 활성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 시장 특화거리 조성 등으로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취업준거센터 운영 확대, 취업박람회 개최, 구인구직 만남의 날 등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문화·관광 도시 조성을 목표로 정읍천과 정읍역을 연결한 관광 하플레이스 조성 사업에 33억원을 아양산 목조 전망대 설치에 130억원을 투입해 정읍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조성한다. 또한 내장산문화광장에는 381억원을 들여 정읍문화유산 방문자센터



와 엑스트림 스포츠 시설 등을 건립해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에 60억원을 투입해 창의인재 육성과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 등을 추진하고, 2028년까지 172억원을 들여 정읍학교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해 교육·문화·관광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

다.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바이오산업과 반려동물 산업 육성에도 힘을 쏟는다. 그린바이오산업 529억원, 레드바이오 산업 310억원, 반려동물 산업에 333억원을 투자해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첨단바이오 지식산업센터 건립으로 창업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전북최대 착한가격업소 52개 지정

서민경제 활성화 앞장

고창군이 '착한가격업소'를 전북최대인 52개소로 대폭 확대하면서 지역 물가 안정화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14일 고창군에 따르면 물가안정화를 위해 '착한가격업소'를 지난해 25개소에서 올해 52개소로 대폭 확대 지정했다.

이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지역 물가안정과 개인서비스 요금 인상자제 분위기 확대로, 서민생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부안군의회, 2025년 첫 임시회 개최

부안군의회(의장 박병래)는 14일 2025년 새해 첫 임시회를 개최하고 오는 24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358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5일부터 23일까지 7일간에 걸쳐 2025년도 상반기 군정에 관한 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며, 부안군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박병래 의장은 개회사에서 "대체없는 쌀값 하락으로 인해 농업인들이 그 어느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서 "부안군의회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중앙정치권과 연대하여 다각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

했다. 또한 정치·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민생안정지원금에 대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으며, 아울러,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기댈 언덕이 될 수 있는 부안군의회가 되도록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더 나은 부안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고 점심이나 회식이 있을 때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만족도를 높이고,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착한가격업소'는 의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가격, 품질, 위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중 주민만족도가 높은 업소를 선정해 지원한다.

/고창=김영식 기자

했다.

또한 정치·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민생안정지원금에 대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으며, 아울러,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기댈 언덕이 될 수 있는 부안군의회가 되도록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더 나은 부안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이 14일 동리국악당에서 '적극적인 주민참여와 주민자치역량강화로 주민이 중심이 되는 주민자치시대 실현'을 주제로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주민이 중심이 되는 주민자치시대'

고창군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 2부 행사로 진행

고창군이 14일 동리국악당에서 '적극적인 주민참여와 주민자치역량강화로 주민이 중심이 되는 주민자치시대 실현'을 주제로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2025년 새롭게 선출된 14개 읍·면 주민자치위원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풀뿌리 민주주의 확립과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1부 행사는 새롭게 선출된 고창군 주민자치위원협의회회장과 14개 읍면위원장 소개를 시작으로, 서해안철도 국가계획 반영을 염원하는 퍼포먼스와 군정현안 교육이 이어졌다.

특별 강연자로 초빙된 이철선 개그우먼은 '건강한 삶을 위한 컨디션트

레이닝'이란 주제로 스트레스 관리 등 실질적인 건강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2부에서는 심덕섭 고창군수가 주민자치위원들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특강을 진행했다.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이석숙 강사의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방향과 실무교육'을 통해 주민자치위원회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성홍제 고창군 주민자치위원협의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주민자치를 일상과 연결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는 주민자치위원뿐만 아니라 주민들과 함께하는 교육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농가 소득 안정·경쟁력 강화

정읍시, 낙농 지원사업 본격 시작... 낙농 도우미 지원 등

정읍시가 낙농가들의 소득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3억 6000만원을 들여 8개의 낙농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진행되는 주요 지원사업은 △젖소장액 지원 △착유우 유두침지제 지원 △착유시설 세척제 지원 △낙농도우미 지원 △낙농 기자재 지원 △친환경 우수 생산 기반 구축 지원 △착유세정수 정화처리 시설 지원 등이다.

우선 젖소장액, 착유우 유두침지제, 착유시설 세척제 지원사업은 젖소 번식과 깨끗한 우유 생산을 돕는 필수 약품을 지원한다.

특히, 젖소장액 지원을 통해 우수 품종의 젖소를 생산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우유를 생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농가들은 품질 높은 우

유를 생산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

낙농 도우미 지원사업은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전문 도우미를 파견해 일시적인 위탁 관리를 지원하고, 낙농 기자재 지원사업은 농가에 젖소 보정집금 장치 등을 제공해 작업 효율성을 높인다. 친환경 우수 생산 기반 구축 사업은 착유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고 착유세정수 정화처리 시설을 통해 강화된 수질기준에 맞춰 세척수를 방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낙농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농가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